

# 시대 변화 못 따라가는 농·어업 환경... 젊은이들 떠난다

## 경쟁력 떨어지는 전남 농수산업

농업·농촌, 어업을 살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10년이 지나도 농촌과 어촌은 크게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농·어촌은 갈수록 활력이 떨어지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농·어업 환경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채만 늘어가는 상황이다. 6차 산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가공산업도 눈에 띄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식량 안보를 책임져야 할 농·어촌의 위기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기후 변화로 작황에 영향을 받는다 하면, 코로나19로 일손 구하기도 쉽지 않아 수확·물류작업에까지 차질이 빚어지면서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시기, 농·어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남도의 구상이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에 부채도 늘어=65세 이상 농가는 10년 전인 2011년만 해도 9만4849가구로 집계됐다. 10년이 흐르면서 65세 이상 농가는 9만7151가구로 늘어났다. 전남지역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도 10년 전인 2011년 41.0%(37만9767명 중 15만5788명)에서 지난해 53.1%

12.1%포인트 증가했다. 농가인구 비율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다. 전남 어가인구는 지난해 65세 이상이 1만2700명인 반면, 40대 이하 인구는 1만명이 못되는 상황이다.

반면, 전남 20~30대 농가인구는 급감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남 20대 농가인구는 9301명, 전년(1만1069명)보다 16.0% 줄었고 1만5001명이던 2011년보다 5000명 넘게 감소했다. 전남 20대 농가인구는 지난해부터 1만명 밑으로 내려앉았다.

30대 농가인구도 9960명에서 8048명으로, 19.2%(-1912명) 줄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구조가 반복되다보니 인력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다.

농가소득은 2011년 3043만원에서 2020년 4368만원으로 상승하긴 했다. 하지만 이 기간 1671만원(2011년)이던 부채도 2021년 2688만원으로 크게 늘어 소득 상승 효과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어업 분야의 경우 2011년 113만 t에 달했던 수산물 생산량은 2020년 187만 t으로 늘어났지만 어가 부채도 세대당 3564만원(2010년)에서 6390만원(2020년)으로 증가했다.

◇농촌 자원 활용한 경제 활성화 꾀해야=농촌경제연구원은 농공단지 등 농촌형 경제활동의 거점이자 주거·문화·복지 기능이 복합된 농촌혁신클러스

터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 내 다양한 비농업 부문 경제활동 기회를 만들어 농업 외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귀농인이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별 특화자원에 기반한 농촌 스마트 전문화 달성 및 농촌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필요하다는 게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주장이다.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100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도 이같은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젊은층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전략이다. 전남도가 구상중인 세계적인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도 농·어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키워 살만한 농·어촌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윤 대통령 “민생 현장 나가 국민 어려움 듣겠다”

###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한 6% 정도 상승했다”며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

한 지출구조 조정과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 매려던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질적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합·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와 비공개 토론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 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며 “각 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부실인사, 인사실패의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문제들은 사전에 검증 가능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질문에는 손가락을 흔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언급은 일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무관하게 자질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정부·국회는 파트너”... “더 소통할 것”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 김대기 비서실장 예방 받아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5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부수석의 예방을 받았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을 찾은 김 비서실장과 이 정부수석에게 “대통령께서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계속 이야기하듯, 민생경제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보다 시급한 목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모두가 파트너이자 동반자”라며 “각종

법안이나 예산을 심의할 때 다수결의 원칙만 강조하기보다는 충분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실장은 “요새는 경제가 정치고 정치가 경제”라며 “행정부 힘만으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회와 더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침묵 깬 이준석, 다시 윤핵관 ‘직격’

윤리위 임박에 與 내홍 심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삼남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오는 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가 5일 이를 앞두고 다가오면서 내홍이 점점 심화하는 양상이다.

당 내부에서 이번 징계 심의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폭풍의 한 가운데 선 이 대표가 이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최근 자신에 대한 공격의 주제로 꼭 집어 지목하면서 계파간 대립 구도가 점점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보면 혁신위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간 것도 무슨 제가 사적인 일정으로 간 것처럼 공격이 들어온다”며 “윤리위와 관계없이 아팠든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느냐”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윤핵관” 그룹을 겨냥해 “칼을 빼 들고 달려오는 사람”이란 무슨 타협을 할 수 있겠느냐”며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공격에 타협 지점이 어디 있느냐”면서 정면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이후 최고위에서 공개 발언을 생략하고 소셜미디어(SNS)도 자제하는 등 ‘무음 모드’에 들어갔던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심사가 임박해오자 다시 포문을 열어 ‘윤핵관’ 집중 타격에 들어간 양상이다.

이 대표 측은 이번 윤리위 징계 심의에 대해 ‘결과를 미리 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징계 수위에 따른 대응 방안 수립과 상황반전 카드 마련 등에 부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진윤(親尹) 측은 이 대표에 대해 속을 꿰뚫어봐도 윤리위 결정 전까지는 가급적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하지만 ‘윤명의 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당내에서 이 대표의 처신 및 윤리위 활동에 대한 월가월부도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봄에 떠나는 그라운드를 섬어항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투어나우: 062-575-8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